

경계와 이동에 대한 신학적 고찰: 윌리엄 골딩의 “섬”과 C. S. 루이스의 “행성”사이

이희구 중원대 부교수

I. 서론: 닫힘의 섬과 행성, 그리고 열림의 가능성

본 연구는 섬과 행성이라는 분리된 공간과 경계를 사유하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소설의 세계를 만들어낸 두 작가를 통해 드러내라고 한다. 노벨 문학상과 『파리 대왕』(*Lord of the Flies*)으로 알려진 윌리엄 골딩(William Golding)과 중세 영문학 자이자 신학적 변증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The Chronicles of Narnia*)로 대중에게 알려진 C. S. 루이스(Lewis) 사이에 긴밀한 영향 관계나 개인적 인연은 없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참전이라는 직접적 형태로 경험한 그들이 다루는 섬과 행성, 그리고 신학적 문제는 그들이 비교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실험”의 장소였던 섬과 공상과학 소설의 인기와 함께 새로운 실험실로 등장한 지구 밖의 행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허락하는 공간이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 폐쇄된 무인도에서 인간의 악에 대한 실험적 고찰했다면 그의 세 번째 작품인 『핀처 마틴』(*Pincher Martin*)은 바위섬에서의 생존이라는 환각을 통해 정죄와 연옥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탐구한다. C. S. 루이스는 자신의 “행성 삼부작”(*The Space Trilogy*) 중 첫 번째 연작인 『침묵의 행성 밖으로』(*Out of the Silent Planet*)와 두 번째인 『펠럴란드라』(*Perelandra*)를 통해 행성에서 죄의 기원과 선악의 문제를 다룬다. 골딩의 섬과 루이스 행성 모두 폐쇄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골딩의 섬과 루이스의 행성은 경계를 사고하는 중요한 차이를 담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계를 사유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장-뤽 낭시(Jean-luc Nancy)가 제시한 “열림”(opening)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두 작가를 가르는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섬은 문학에서 독특한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섬은 심지어 철학자가 사상을 펼치기 위한 배경으로도 사용됐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ake Zarathustra*)에서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자신이 제자들과 머물렀던 “행복한 섬”을 즐겨 거운 장소이며 다른 곳을 탐색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말 그대로 “행복한” 장소이자 집으로 묘사한다(136-140).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철학적 이상인 아이의 철학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섬은 떠나야 했지만 행복했던 장소로 남는다. 근대 문학에서 니체의

행복한 섬은 섬 일반에 대한 설명이 아닌 예외적 사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섬은 유토피아를 실험하는 철학적 장소(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Utopia*))이거나 괴물이 살아있는 곳이었고(조나단 스유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제국이 팽창하던 시기에 인간의 욕망을 시(실)험하는 섬(로버트 스티븐슨(Robert Stevenson)의 『보물섬』(*Treasure Islands*))이기도 했다. 어쩌면 소설의 탄생이 섬이라는 상상력의 토대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¹⁾ 근대 과학의 발전은 섬을 비유적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실험실이 되도록 자극했다(H. G. 웰즈(Wells)의 『모로 박사의 섬』(*The Island of Doctor Moreau*)). 현대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통‘섬’(J. R. 발라드(Ballard)의 『콘크리트 섬』(*Concrete Island*)) 혹은 이해진 감독의 <김씨 표류기>으로 원자화된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면서 폐쇄성을 통해 이어지는 섬과 소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 간략한 역사적 서술에서도 드러나듯 섬이 제공하는 소설적 상상력은 국소적인 영역에 집착한다. 다시 말하면 닫힌 하나의 작은 계(界)를 구성하는 섬의 상상력이 근대화를 통해 발전한 이 시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소설적 장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상과학 소설과 사변 소설은 탄생은 분명히 소설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주요 소재인 외계와 행성은 섬과 같은 방식으로 전용된다.²⁾ 지구의 법칙 일반과 다른 어떤 것을 실험하기 위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외계와 행성은 섬과 유사한 또 다른 실험실이다.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공상과학 소설은 첫 등장에서부터 식민 서사와 유사한 이야기이었다(쥘 베른(Jules Verne)의 『신비의 섬』(*The Mysterious Island*), H. 라이더 해거드(Rider Haggard)의 『그녀』(*She*)). 우주로 눈을 돌린 공상과학 소설은 시간상으로는 미래에서, 공간적으로는 완전히 이질적인 외계와 그곳의 행성에서 이질적인 동시에 친근한 방식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식민 역사를 다시 반복한다. 그레그 그레웰은 공상과학이 우주 식민 서사에서 우주를 식민화하는 방식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탐

1) 이안 와트(Ian Watt)는 소설의 발생을 근대 개인주의 신화와 연결하며 대니얼 드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를 그 시작으로 삼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비판 중의 하나는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던 그리스 로맨스의 존재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로맨스 역시 지중해의 여러 섬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섬이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유동성”이 소설의 장르적 상상력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공상과학의 기원과 장르는 소설의 탄생만큼이나 정확한 설명을 거부한다. 과학의 개념, 공상과학 잡지의 편집자, 작가, 독자 등 다양한 작용들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공상과학 소설의 장르는 어떤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발표문은 이 공상과학 소설의 중요한 특징중에 하나인 “식민주의 서사”에 집중하여 논의를 발전시키려 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을 통해 공상과학 소설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세릴 빈트와 마크 볼트의 『SF 연대기: 시간 여행자를 위한 SF 랜드마크』를 참고하라.

험”(explorative), “순치”(domesticative), “전투”(combative)라는 세 단계를 통한 식민주의 서사는 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의 공상과학 소설은 “전투”적 방식으로 공간을 축소하고 시간을 붕괴시켜 친근하지 않은 외계/이질적인 것을 친근하게 친근한 것을 외계/이질적인 것으로 바꾸고 우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영토로 변화시킨다(29).

공상과학 소설은 이처럼 섬과 행성을 하나의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실로 기능하도록 요구한다. 스테파노스 스테파니데스와 수전 배스넷은 섬이 제공하는 은유적 가능성이 안과 밖, 주체와 객체를 새롭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섬 자체의 독립적 특징은 여전히 남는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행성은 다양한 주제와 배경으로 사용되고 행성 간의 갈등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지만, 행성 자체의 독립성은 여전히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섬과 섬의 경계, 행성과 행성 사이의 경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섬과 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다와 행성과 행성 사이를 채운 우주공간은 언제나 제거되거나 생략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바다의 서사와 우주공간의 서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바다와 우주공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장애물, 서사의 주인공들이 다시 대륙과 지구라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서구 최초의 문학 작품인 『오뒷세이아』가 이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섬은 벗어나야 할 마법과 괴물의 장소이고 바다 역시 괴물 그 자체다. 마찬가지로 60년대부터 공상과학 소설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우주 오페라 속 시간과 우주공간은 기술을 통해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본 연구는 바다와 우주공간이 어떤 섬과 섬, 행성과 행성 사이를 매개하는 수동적인 매질이 아닌 섬과 행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섬과 섬, 행성과 행성이라는 두 개의 향에 예상 불가능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동적인 제3의 향으로 다시 정립하려고 한다. 서양의 사유가 주체와 객체의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철학사에서 상당히 늦게 출현했다. 데카르트가 정초한 근대의 주체 철학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갈등과 칸트의 초월철학적 봉합을 거쳐 헤겔과 관념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경계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하지 못했다. 기원과 목적이라는 거대한 틀을 다이너마이트로 부순 니체의 생성과 변화의 철학이나 존재를 다시 불러온 하이데거의 철학에서도 경계는 본격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경계에 대한 사유의 부재가 하이데거의 나치 부역의 철학적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³⁾ 본격적인 경계로의 전회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정통 철학사의 관점에서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의 과정 철학(process philosophy)이 경계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전회는 철학과 철학이 아닌 그 사이에 있던 (비)철학자

3) 장-뤽 낭시는 하이데거의 나치 복무를 어떤 일상적 악의 평범함이 아니라 그의 철학 내부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낭시의 『하이데거의 평범성』(The Banality of Heidegger, 2017)을 참고하라.

들의 새로운 철학적 탐구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경계라는 사이를 존재들 사이의 부정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선행하는 긍정의 형태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경계의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⁴⁾

이 경계 혹은 사이의 철학자들은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의 해체 철학 속에서 경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시작했다. 기원 속에 기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이와 틈을 발견한 이들은 기원, 목적, 전체의 불가능성을 주장했고 이 주장으로 철학의 외부에서 내부의 불가능한 틈으로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 장-뤽 낭시는 이 경계에 대한 사유를 본격적인 자기의 철학적 중심 주제로 설정한 철학자이다. 경계, 틈, 사이는 초월적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들이 닫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있어지도록 만드는 내재적 만짐이자 “의미”(sense)이다(Nancy, *The Sense of the World* 55-6). 구분을 통해 기호적 의미를 생성하는 구조 달리 낭시의 내재적 열림이 불러내는 “의미”는 “분유”(sharing)와 “만짐(touch)”이 만들어내는 것이다(Morin 43). 이분법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동일성이 지배하는 장소라면 “열림”이 만들어내는 “의미”는 단독자(singular)들의 세계이다. 이 열린 세계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ex-position)의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드러냄의 영김은 모든 존재를 동일성으로 포획되지 않는 독특한 개체로 구성한다. 이 단독자들의 세계는 모든 것들에 열린 공간이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곳이다(Nancy, *The Creation of the World* 42).

낭시는 사이의 존재론을 기독교 신학적 이해로 확대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분명 닫힌 세계의 형이상학적 근거로 작동하지만, 기독교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 유일신론을 해체하고 “의미”의 세계가 가능함을 증명한다. 낭시는 유일신론의 기독교가 아닌 삼위일체의 기독교를 소환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움(kenosis)으로 세계 속에 존재가 아닌 하나의 관계로 기입된다고 주장한다(Morin 70). 신이 자신의 구원적 사역을 통해 유일신론(theism)을 해체한다는 역설적인 무신론적 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낭시의 신학은 세계를 전통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적인 세계의 닫힌 체계가 아닌 틈, 경계, 사이의 공간으로 열려있는 장소로 인식한다. 그는 신학의 존재론적 경계, 틈, 사이를 “공간내기”(spacing)라고 지칭하면서 기독교적 “경배”(adoration)를 이 공간내기의 예로 제시한다. 경배하는 입이

4) 최근 주목을 받는 신유물론을 이 사이의 철학으로 지목할 수 있다. 신유물론의 관심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철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신유물론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관계 그 자체에 있다가 보다 지배적 인간 행위 주체의 권리를 기각한 새로운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유물론의 복잡한 계보를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신유물론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에 포함되는 이론들이 관계/사이/틈을 본격적으로 사유하기 보다는 포스트휴먼적인, 다시 말하면 인간 주체의 지배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레이엄 하먼의 『브뤼노 라투르: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를 참조하라.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기에 신과 나의 몸이 연결되는 것처럼, 경배는 안이 항상 밖으로 열리게 하는 내적 한계 혹은 내적 과잉을 “지-칭”(ad-oratio)한다(Nancy, *The Adoration* 18).

이와 같은 낭시의 해체적 기독교 이해는 섬과 행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본 발표문은 섬과 행성을 닫힌 형이상학적 체계로 인식하는 근대적 관점과 섬과 섬 사이와 행성과 행성사이에 제거할 수 없는 경계적 사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공간내기의 신학적 관점이 각각 골딩의 “해양” 소설과 루이스의 공상과학 소설적 “우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골딩의 소설 가운데서 『파리 대왕』과 『핀처 마틴』은 약과 구원이라는 신학적 문제를 다루지만, 이 두 소설은 섬이라는 폐쇄적 공간성을 인간의 신학적 이해에서 기원하는 어떤 한계로 전제하면서 사이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반면에 루이스의 우주 소설들은 중세적 우주관을 재전유하여 사이와 경계를 하나의 소통이 가능한 파스한 공간으로 행성과 행성 사이에 새롭게 기입한다.

II. 윌리엄 골딩의 폐소공포증적 신학과 섬/공간

잘 알려져 있듯이 골딩의 『파리 대왕』은 로버트 벨런타인(Robert M. Ballantyne)의 『산호섬』(*The Coral Island*)을 다시 쓰기 한 것이다. 골딩의 전기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아이들에게 섬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부인에게 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써보자고 제안한 후 저술되었고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과 함께 학교에서 가장 많이 교재로 사용되는 소설 중 하나가 되었다. 영미권 문학 수업이 『산호섬』을 버리고 『파리 대왕』을 문학 수업의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인간 이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근대적 섬은 더 이상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은 인간을 설명할 수 없었다. 벨런타인의 서사에서 친구 사이인 랠프(Ralph), 잭(Jack), 피터(Peter)는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난파된 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배에서 구한 도구로 섬을 탐험한다. 제국의 자식들답게 그 아이들의 적은 오직 그 섬의 야만인이다. 골딩뿐만 아니라 학교 문학 교사들도 이런 섬의 노골적인 식민주의 이야기를 받아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로빈슨 크로스』의 식민주의 섬 이야기를 탈식민주의 섬 이야기로 되받아쓴(write-back) 존 콧시(John Coetzee)의 『포』(*Foe*)처럼, 골딩은 벨런타인의 섬이 설명할 없는 20세기적 인간의 이해를 내면화된 섬을 통해 제시하려고 한다.

『파리 대왕』에서 벨런타인이 식민주의 서사의 타자로 제시한 야만인이라는 적은 이제 내면으로 이동한다. 이동의 과정에서 물리적 섬은 인간 내면의 섬이라는 더욱 협소한 공간으로 좁혀지고 『실낙원』(*Paradise Lost*)의 팬더모니엄(Pandæmonium)처럼 인간 내부의

악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무대가 된다.⁵⁾ 이 악은 책과 그의 무리에게만 한정되는 것을 넘어 소위 선한 무리인 램프와 피기(Piggy), 사이몬(Simon) 모두로 확장되고, 이 소설의 서사적 배경이 되는 핵전쟁이라는 상황은 인간 모두를 포함한다(Reiff 72). 악에 대한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은 골딩의 소설을 현대 알레고리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골딩이 유지한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훈계하는 그런 종류의 알레고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분명 명확하게 자기의 “사상”을 인물들을 통해 드러낸다(Dickson 4). 알레고리적 작품의 특징은 그의 형이상학적 혹은 신학적 사유와도 관련이 있다. 골딩이 그의 소설에서 인간 경험을 육체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 사유와 감정이라는 극단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그의 “종교적 관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Gindin 13). 그의 닫힌 신학적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선악의 이분법이고, 이분법은 그 섬을 선악의 실험실로 탈바꿈시킨다. 여러 연구가들은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의 철학과 비교하면서 골딩의 소설이 파괴적 의지가 표상된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다시 해석하면 골딩의 소설은 이 선악의 의지를 실험실로써의 섬으로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산호섬』의 식민 서사의 섬을 다시 쓴 『파리 대왕』은 그 안과 밖,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구분보다 더 폐쇄적인 섬, 인간의 본성, 악이라는 자연주의적 윤리의 감옥에 독자들을 가둔다. 아이들을 어떤 문화와 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옥,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부에 주어진 “본성”이라는 자연은 섬이라는 자연과 연결되고 섬이란 커다란 감옥의 알레고리를 완성한다.

소설의 서사 그 자체보다 마지막 종결부가 감옥이란 알레고리와 섬의 폐쇄성을 더 극적으로 드러낸다. 램프가 무리에 쫓겨가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해변에 도착했을 때, 램프가 마주친 것은 햇빛에 빛나는 제복을 입고 자동총으로 무장한 해군 장교의 모습이었다. 그 장교 앞에서 램프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림에 대하여 슬퍼하는 램프의 모습은 그 장교에게 또 다른 “산호섬”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I know. Jolly good show. Like the Coral Island.” 182). 악의 실험실이었던 섬의 알레고리는 이 마지막

5) Thus incorporeal Spirits to smallest forms
 Reduced their shapes immense, and were at large,
 Though without number still, amidst the hall
 Of that infernal court. But far within,
 And in their own dimensions like themselves,
 The great Seraphic Lords and Cherubim
 In close recess and secret conclave sat,
 A thousand demi-gods on golden seats,
 Frequent and full. After short silence then,
 And summons read, the great consult began. (Milton 1.789-95)

장면을 통해 전체 세계, 아이들의 세계를 넘어 성인으로, 즉 인류로 확장된다. 소설은 본성이라는 악의 자연적 법칙이 아이들의 작은 산호섬을 넘어 행성 단위의 문제, 즉 지구의 문제로 그 스케일을 키운다. 골딩은 작은 섬의 실험실에서 피험자인 아이들의 통해 인간 내면의 악을 처절하게 그렸다면, 지구라는 확장된 행성의 피험자들을 평온한 방관자로 묘사한다. 이 대비는 골딩의 형이상학적 태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형이상학은 극소의 작은 실험실에서만 실체적 존재와 인식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골딩이 더 작은 공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인간 존재와 윤리를 말하려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섬보다 더 작은 곳, 바위 섬이 이 연구가 다루는 골딩의 두 번째 소설의 장소이다. 1956년에 쓰인 『핀처 마틴』은 제목의 인물이 어뢰에 파괴된 함선에서 조난 당한 후 조그만 바위 섬에 생존하는 단순한 서사의 소설이지만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작품이다. 오로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감각, 현재로 재현되는 기억, 생존 본능 등이 하나의 서사로 묶여 독자를 옥죄는다. 바위섬에서의 생존은 그의 이기적 삶에 내재한 동물적인 생존 본능에 기대어 가능하다. 그의 의식에 침범하는 그의 기억의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과거의 그의 추악함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기억의 퍼즐은 그는 친구의 부인들과 여자 친구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마리를 겁탈하고 마리와 결혼을 했다는 자기의 친구 너새니얼(Nathaniel)을 함선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추악함 드러낸다. 이런 생존의 서사와 추악한 과거의 회상은 예기치 않은 결말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파리 대왕』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의 끝에서도 영국의 장교가 등장한다. 장교는 해안으로 쓸려온 마틴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가 함선의 격침 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에 따르면 마틴은 자기 신발을 벗을 시간도 없이 바로 사망했다(“He didn’t even have time to kick off his seaboots,” 192). 이 사실을 통해 이 서사는 마틴이 사망하기 전 몇분도 안 되는 찰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평가들은 이 소설 역시 하나의 우화라고 평가한다.

이 우화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골딩 자신과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이 소설은 구원의 전 단계로 존재하는 연옥에 대한 우화로 이해할 수 있다(Tiger 95). 하지만 골딩 자신의 다음과 같은 언급 “Just to be Pincher is Purgatory; to be Pincher for eternity is hell”이 말해주듯 이 연옥은 영원한 지옥과 다름없다. 단테의 『신곡』에서 연옥은 지옥과 천국을 이어주는 경계이지만 골딩이 설명하는 과거의 죄와 함께 무한히 오르고 내려야 하는 이 바위섬 연옥은 영원한 반복만이 가능한 공간이다. 『신곡』에서 연옥은 높은 산이고 이 산은 다시 천국의 행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테의 여정은 장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연옥, 천국 사이의 경계를 천상의 도움(베리길리우스와 베아트릭체)을 통해 통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골딩의 바위섬은 자신의 구조(원)를 위해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게

쌓아놓은 돌무덤을 정점으로 끝나고 어느 곳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의 신학적 서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독교와의 연결 관계를 탐색했고 명확하게 그 관계를 규정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의 신학적 형이상학은 닫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바위섬은 모두가 막힌 연옥으로 지옥과 다름없다. 이 지옥 같은 연옥에서 그의 고향을 들어줄 어떤 열림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생존 본능 그 자체일 뿐이다. 그 공간은 그의 정신에 잠시 존재하는 폐쇄된 공간이다.

『파리 대왕』의 섬에서 『핀 처 마틴』의 바위섬으로의 축소는 그의 정신에 마련된 더 작은 폐쇄된 공간으로 수렴된다. 골딩은 다양한 작품에서 의식이라는 존재를 두개골 내에 숨어있는 어떤 자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재현한다. 『핀처 마틴』 바로 전에 출간된 『상속자들』(*Inheritors*)에서 골딩은 호모사피엔스에 의해 밀려나는 네안데르탈의 비언어적 의식을 기술하기 위해 이 기법을 주로 사용했었다. 『핀처 마틴』의 생존 과정도 이러한 비언어적 의식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네안데르탈인의 의식처럼 그의 사고도 세상을 관찰하는 두개골과 안외골 안에 있는 뇌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검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바위섬이 그를 고립시키기 이전 마틴의 의식은 절대적으로 분리된 이 공간에서 간헐했다. 이 공간은 연옥의 공간으로 기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종교적 “의미”의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마틴이 자기의 불같은 생존 의지를 표상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서사의 종결과 함께 사라진다. 독자는 이 사라짐의 서사적 진행에 한명의 행위자로 참여한다. 종결부에 도달한 모든 독자는 마틴의 서사를 중지시키는 것을 넘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그의 연옥 이야기를 “검시적”(post mortem) 서사로 만드는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 독자는 마틴의 사체를 발견한 장교의 사망 선고를 듣고 그의 공간을 제거한다. 섬, 바위섬, 두개골 속의 의식, 연옥의 공간, 그리고 사라짐이 드러내는 극한의 폐쇄성은 골딩의 섬이 상징하는 갇힌 신학적 은유이다.

섬과 섬 사이의 공간인 바다에 대한 서사 역사 골딩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사이와 경계에 대한 그의 서사 역시 섬의 닫힌 신학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대양 안에서 항해하지만, 바위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간인 함선을 개조한 여객선에 한정된다. 골딩의 후기 작품에 속하는 삼부작으로 구성된 『지구의 끝으로』(*To the Ends of the Earth*)는 귀족인 탈봇(Talbot)의 일기 형태로 서술된다. 그의 여행 일기(특히, 삼부작 중 첫 번째 소설인 『통과 의례』)는 19세기 호주로 향하는 배라는 공간/실험실 속에 고립되고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계급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다.⁶⁾ 이처럼 골딩의 서사는 섬이란 공간의 닫힘을 천착할

6) 이 삼부작은 『통과 의례』(*Rites of Passage*, 1980), 『불편하게 가까운』(*Close Quarters*, 1987), 『저 밑의 불』(*Fire Down Below*, 1989)로 구성된 연작소설이다. 서사는 모두 탈봇의 이야기로 호주로 가는 여정에서

뿐 섬을 존재론적으로 구성하는 열림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섬과 섬을 이어가는 항해도 배라는 폐소공포증을 일으킬만한 공간으로 협착 시킨 이후에만 그의 서사에 등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인간에 대한 회의를 신학적으로 고찰한 그의 서사는 모더니스트 시학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파편으로 재현되지만, 중심이라는 내면에 갇힌 “자아”를 포기할 수 없는 20세기의 시학은 새로운 틈이나 사이의 생성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III. C. S. 루이스의 신학적 행성과 따스한 우주

루이스는 골딩과 달리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자기 작품의 주제로 내세우는 것 같다. 하지만 루이스가 자신의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한 에세이에서 밝히듯 그는 소설이 자신에서 떠오른 이미지에서 출발할 뿐이고 신학적 주제는 그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스며드는 자기의 사유의 흔적이라고 설명한다(Lewis *On Stories* 53). 이 방식이 그의 소설에 대해 말하는 바는 그가 작품을 하나의 체계나 구조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연결되는 예기치 못한 노드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나니아 연대기』는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낸다. 연대기 중에서 시간상 연작의 첫 번째 순서에 위치한 『마법의 조카』는 시공간의 어떻게 만들어지는 잘 드러낸다. 이렇게 탄생한 『침묵의 행성 밖에서』에서 “속죄양”(ransom)을 의미하는 주인공의 이름만 보아도 이 소설이 전달하려는 신학적 의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처럼 루이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한다(황치복 9). 하이킹을 하던 주인공 엘윈 랜섬(Elwin Ransom)은 날이 저물어 숙소를 찾던 중 어떤 어수룩한 소년을 구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납치 당한다. 그를 납치한 인물은 광적인 과학자 웨스턴(Weston) 교수와 탐욕스러운 동료인 드바인(Devin)이다. 그들은 저항하는 랜섬을 그들이 직접 제작한 우주선에 태워 한 행성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이 행성을 화성이라 알고 있지만 화성에 사는 종족은 이를 말라칸드라(Malacandra)라고 부른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납치된 이유를 알게 된다. 그들의 목적은 이 행성을 정복해 금을 탈취하려는 것이었고, 그는 이 행성의 생명체에게 바쳐질 인간제물이었다. 웨스턴과 드바인이 그를 이 행성의 종족 중 하나인 소른(Sorn)에게 넘기려 할 때, 바다 괴물이 나타나 이들을 공격하는 틈을 타 랜섬은 도망친다. 랜섬은 흐로스(Hross)라는 수달을 닮은 종족을 만나 그들의 언어와 종교를 접한다. 그들에 따르면 말렐딜(Maleldil)은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신이다. 그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작중에서 특히 첫 번째 작품인 『통과 의례』의 서사는 공간과 인간관계의 폐쇄성을 진행한다

아래로 엘딜(eldil)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말라칸드라를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엘딜들의 수장인 오야르사(Oyarsa)다. 엘딜은 랜섬에게 오야르사를 보러가라고 명령한다. 어렵가지 어려움을 겪은 랜섬은 드디어 오야르사를 보게 되고 오야르사는 그에게 지구의 오야르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설명한다. 이 타락한 오야르사는 다른 행성들과 관계를 끊는다. 소통이 단절된 지구는 침묵의 행성을 의미하는 툴칸드라(Thulcandra)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 웨스턴과 드바인이 잡혀온다. 이들은 오야르사의 목소리가 다른 종족의 목소리라고 믿었지만 진짜 그의 목소리임을 알아챈다. 웨스턴은 자신들이 죽을지라도 언젠가는 지구인들이 이 행성을 정복할 것이라 주장한다. 오야르사는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구인들의 생각은 지구의 오야르사의 타락의 결과임이라 말한다. 오야르사는 이 둘에게 90일치의 음식과 산소만 주고 돌려보내고 랜섬에게 이 타락한 자들을 잘 감시하도록 명한다.

루이스는 이 소설에서 진화론이 과학의 한계를 넘어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우려했다(Downing 36). 소설가 H. G. 웰즈(Wells)를 통해 대중화된 진화론적 사고는 인간이 더욱 발전하면 우주의 모든 곳을 정복하리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사실 루이스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와 윤리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영역으로 웰즈식의 진화론이 침투하는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루이스가 이 소설을 쓸 당시에 우생학이 공공연하게 인정되었고 나치와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화론적 우생학은 인간에 대한 차별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인간 종족의 생존은 모든 윤리를 넘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획득했다. 인간이 진화하면 자연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신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이들의 논리는 20세기 초의 제국주의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런 사상은 웨스턴과 드바인의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들이 화성인들을 대하는 행동은 제국주의자들이 피식민자들을 다룬 것과 다르지 않다.

루이스는 캠브리지 대학의 취임사에서 발전 중심의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기에서 그는 시대구분의 무의미함을 전하면서 중세와 르네상스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분기점은 없다고 주장한다(*Selected* 1-15). 오히려 19세기 과학기술의 등장은 어느 시기의 역사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이 불러온 발전담론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것은 나쁘고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속물적인 생각(chronological snobbism)을 심어주었다. 또한 이 발전 중심적 과학주의는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말살시켰다(*Selected* 1-15). 그래서 루이스는 웰즈의 공상 과학 소설의 유물인 차가운 우주를 거부하고 “폐기된”(discarded) 중세 이미지를 불러낸다. 그는 중세 사람들이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우주를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천체가 칠흑같이 어둡고 완전히 차가운 빈공간이라는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우주에 대한 상상에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없을 것이다”(The Discarded Image 111). 중세에도 우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Muessig and Putter 3), 루이스가 바라본 중세인의 우주는 신의 따스한 사랑과 질서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런 우주의 메시지가 과학으로 병든 인간을 고치리라 믿었다(Sammons 41-49).

루이스는 랜섬의 입을 통해 차가운 웰즈의 우주관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중세의 따스한 우주관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랜섬은 자신을 납치한 웨스턴에게 “늘 우주는 어둡고 추울 거라” 고백한다(*Out of the Silent Planet* 57). 웰즈의 소설을 읽었던 그에게 우주는 차갑고 적대적인 공간이었다. 오직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 우주였다.

그는 지금껏 어떻게 행성들과 지구까지도 완전한 허공에서 생명과 실체가 떠다니는 섬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이제 그는 확실히 알았다. 행성들은—그의 생각 속에서는 ‘지구들’이라고 부르는 살아 있는 천상에서 구멍이나 벌어진 틈에 불과했다. 무거운 물질과 매연 공기로 된 쓰레기 더미인 행성들은 내쫓겨났으며, 주변에 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있었다. 하지만 태양계 너머에서 밝음은 끝난다고 랜섬은 생각했다. 그것은 정말 허공일까, 진정한 죽음일까? 만약..., 그는 생각을 정리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빛 역시 구멍이나 간격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축소된 형태에 불과하면 어떨까, 천상이 어둠을 밝게 하듯, 뭔가가 변함없는 천상을 밝게 하는 것이라면...

He wondered how he could ever have thought of planets, even of the Earth, as islands of life and reality floating in a deadly void. Now, with a certainty which never after deserted him, he saw the planets—the “earths” he called them in his thought—as mere holes or gaps in the living heaven—excluded and rejected wastes of heavy matter and murky air, formed not by addition to, but by subtraction from, the surrounding brightness. And yet, he thought, beyond the solar system the brightness ends. Is that the real void, the real death? Unless ... he groped for the idea ... unless visible light is also a hole or gap, a mere diminution of something else. Something that is to bright unchanging heaven as heaven is to the dark, heavy earths... (*Out of the Silent Planet* 57)

하지만 그가 목격한 우주는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밝은 공간이었다. 이 우주는 단테가 『신곡』(*Divine Comedy*)의 『천국』(*Paradiso*)편에서 그렸던 달 너머의 세계, 세상의 중심인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이 밝게 빛나는 공간과 유사하다(Lansing 719-720). 단테는 프톨레마이우스(Ptolemy)의 우주론을 통해 천국을 묘사한다. 그의 우주론에 따르면 인간이 사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있고 태양계의 행성들이 그 둘레를 돌고 있다(Sammons

46). 그 너머에는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이 거하는 또 다른 중심이 있다. 랜섬이 우주선 밖에서 발견한 우주는 지상의 빛과는 다른 종류의 영적인 빛으로 가득차 있다.

열기와 빛 모두 지구에서라면 견딜 수 없는 정도였지만, 질감이 색달랐다. 빛은 지금껏 본 어떤 빛보다도 희미했다. 순백색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금색 중 가장 흐린 색이었다. 빛은 투광조명등처럼 뚜렷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습기가 전혀 없는 열기는 거대한 아마사가 살갓을 주무르고 만지는 것 같았다. 나른함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민첩한 기운을 느끼게 했다. 지구에서는 좀체 느끼지 못한 활달한 기분이었다.

Both[heat and light] were present in a degree which would have been intolerable on Earth, but each had a new quality. The light was paler than any light of comparable intensity that he had ever seen; it was not pure white but the palest of all imaginable golds, and it cast shadows as sharp as a floodlight. The heat, utterly free from moisture, seemed to knead and stroke the skin like a gigantic masseur: it produced no tendency to drowsiness: rather, intense alacrity. (*Out of the Silent Planet* 41)

루이스의 중세적 “금빛” 우주는 공상 과학의 서사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과거의 우주관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당시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된다. 루이스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진화론은 단순한 생물학적 설명을 넘어 제국주의적 야망의 불을 지피는 맹목적인 적자생존의 논리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우생학의 배경으로 전용되었다. 실제로 그의 우려는 나치와 홀로코스트라는 상상할 수 없이 잔인한 역사적 결과로 나타났다. 루이스는 『침묵의 행성 밖에서』에서 이런 인간의 ‘타락’을 회복시킬 신의 사랑을 우주 속에서 찾고 있다. 루이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는 플라톤의 존재론을 빌려 영적인 이데아의 실체가 드리운 그림자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이 그림자를 분석해 우주의 신비를 걷어내고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과학의 주장은 루이스에게 어리석기만 하다(*The Shadow-Lands* 15-16).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눈을 들어 이 우주를 밝게 채운 신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고 문헌〉

- 니체, 프리드리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15.
- 빈트, 셰릴, 마크 볼트. 『SF 연대기: 시간 여행자를 위한 SF 랜드마크』. 허블, 2021.
- 하먼, 그레이엄. 『브뤼노 라투르: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 갈무리, 2021.
- Dickson, Larry. L. *The Modern Allegories of William Golding*.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Press, 1990.
- Gindin, James. *William Golding*. Macmillan, 1988.
- Golding, William. *Inheritors*. Faber & Faber, 2021.
- . *Lord of the Flies*. Faber & Faber, 2022.
- . *Pincher Martin*. Faber & Faber, 2021.
- . *To the Ends of the Earth*. Farrar Straus & Giroux, 2006.
- Tiger, Virginia. *William Golding: The Unmoved Target*. Marion Boyars, 2003.
- Lewis, C. 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 *The Discarded Image: An Introduction to Medieval and Renaissance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 *On Stories: And Other Essays on Literature*. Harcourt, 1982.
- . *Out of the Silent Planet*. New York: Scribner, 2013.
- . *The Space Trilogy: Out of the Silent Planet, Perelandra, and That Hideous Strength*. HarperCollins, 2013.
- Milton, John. *The Major Works*.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2008.
- Morin, Marie-Eve. *Jean-Luc Nancy*. John Wiley & Sons, 2012.
- Nancy, Jean-Luc. *Adoration: The Deconstruction of Christianity II*. Forham University Press, 2012.
- . *The Banality of Heidegger*. Forham University Press, 2017.
- . *The Creation of the World or Globaliz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 . *The Sense of the Worl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 Reiff, Raychel Haugrud. *William Golding: Lord of the Flies*. Marshall Cavendish, 2010.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경계와 이동에 대한 신학적 고찰: 윌리엄 골딩의 “섬”과 C. S. 루이스의 “행성” 사이에서	발표자	이희구
		논찬자	이관수 (군산간호대학교 / 조교수)

본 논문 "경계와 이동에 대한 신학적 고찰: 윌리엄 골딩의 ‘섬’과 C. S. 루이스의 ‘행성’ 사이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을 신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윌리엄 골딩은 『파리 대왕』과 『핀처 마틴』에서 섬이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 본성의 악과 구원 문제를 탐구합니다. 골딩의 섬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상징하며,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내면의 악과 씨름합니다.

반면 C. S. 루이스는 『침묵의 행성 밖에서』에서 행성을 통해 인간과 신의 관계,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루이스의 행성은 골딩의 섬과 달리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신의 사랑이 깃든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두 작가는 각기 다른 공간적 설정을 통해 인간 본성과 신학적 문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장-뤽 낭시의 ‘열림’ 개념을 통해 이러한 경계와 이동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낭시의 철학은 경계를 닫힌 것이 아닌 열린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두 작가가 각기 다르게 그려낸 경계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이 논문은 윌리엄 골딩과 C. S. 루이스의 작품을 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두 작가의 상반된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딩의 섬을 인간 본성의 악을 탐구하는 닫힌 공간으로 해석하고, 루이스의 행성을 열림과 소통의 공간으로 묘사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골딩의 『파리 대왕』에서 섬은 인간의 악을 드러내는 실험실로, 고립된 인간들이 도덕적 파탄을 경험하는 장소로 그려지고, 『핀처 마틴』에서는 바위섬이 연속처럼 묘사되며, 인간이 고통 속에 갇힌 채 구원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루이스의 행성은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신의 질서와 구원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두 공간의 대비는 장-뤽 낭시의 ‘열림’ 개념을 적용해 분석되며, 두 작가가 경계와 이동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이 논문은 섬과 행성이라는 공간을 인간과 신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경계와 이동의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골딩의 섬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인간 본성을 상징하며, 루이스의 행성은 소통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장-뤽 낭시의 ‘열림’ 개념을 도입하여 골딩과 루이스의 작품 속 공간의 의미를 분석한 점이 독창적입니다. 논문은 두 작가의 상반된 신학적 관점이 현대 신학과 철학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경계와 이동이라는 주제를 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논의로 확장시킵니다.

4.

* 장-뤽 낭시의 ‘열림’ 개념이 루이스의 『침묵의 행성 밖에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개념이 루이스의 신학적 구원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골딩의 『파리 대왕』에서 섬은 인간 본성의 악을 드러내는 폐쇄적 공간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폐쇄성이 현대 사회의 고립과 도덕적 붕괴를 상징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